

청소년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An Influence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n-Suk Kim(ksunsuk@ut.ac.kr)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청소년 성별에 따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팬덤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경우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인터넷 중독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또다른 형태의 중독과 같은 형태로 발전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나 또래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따라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은 팬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삶에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애착은 팬덤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팬덤활동에 대한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영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팬덤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삶이 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중심어 : | 삶의 만족도 | 자아탄력성 | 또래관계 | 팬덤활동 | 다중집단분석 |

Abstract

This study aims firstly to examine whether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nfluences their fandom activities, then to analyze whether the influences of ego resiliency and peer relations on fandom activities vary by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how, if they do, and finally, using multi-group analysis, to identify whether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their fandom activ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s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s lower, their involvement into fandom activities are increased. Secondly, peer relations and ego resiliency has different relations to fandom activities, that is the former have indirect impact on fandom activities. Ego resiliency has both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fandom activities, that is adolescents who have higher ego resiliency participate more actively into fandom activities and this influence is mediated by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to fandom activities depends of adolescents' gender, that is girls involve in fandom activities more actively. One consistent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fandom activities are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ore various program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self respect and peer relations of adolescents are necessary to facilitate healthier culture of adolescents.

■ keyword : | Life Satisfaction | Ego Resiliency | Peer Relations | Fandom | Multi-group Analysis |

* 본 연구는 2009년 한국교통대학교 신입교원 연구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본 연구는 2012년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접수번호 : #130508-006

심사완료일 : 2013년 06월 13일

접수일자 : 2013년 05월 08일

교신저자 : 김선숙, e-mail : ksunsuk@ut.ac.kr

I. 서론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SNS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팬덤활동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락·연예 프로그램의 확산과 흥미위주의 대중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이제 대중문화는 심대 문화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9].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직업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연예인이 청소년들에게 우상이자 명사로 떠오르고 있어 스타가 되고자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예인에 대한 외적인 모방은 가치관이나 신념까지 모방하게 되어[41] 자아에 대한 신뢰와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청소년의 팬덤문화를 그들만의 독특한 청소년 문화로 인식하는 대안 문화관적 관점도 존재한다[16]. 그러나 팬덤활동을 사회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이 왜 팬덤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화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고, 이들을 동경하고 모방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낀다[3].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을 통해 또래와 경쟁이 아닌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청소년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경험해 나가면서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면 팬덤활동은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해소하지 못한 자유의 결핍, 공동체의 부재, 그리고 불완전한 정체성 등을 가상의 사실 혹은 이상적인 인물로부터 대리 충족하고자 하고, 이것이 지나쳐 스타에 대한 중독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히려 청소년에게 부정적일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팬덤활동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팬

덤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가?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팬덤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나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정도에 따라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청소년 성별에 따라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보다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청소년 팬덤활동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

팬덤이란 fanatic이라는 ‘열광적이고 추종한다’는 의미와 dom이라는 집단적 증후군의 뜻이 결합된 말로 특정 대상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지칭하던 말이었다[19]. 이것은 좁게는 팬 의식을 의미하지만 포괄적으로는 팬이라는 현상과 팬으로의 의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6]. 즉,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여 빠져드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팬클럽 문화에 대해 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19]. 실제로 팬클럽 구성원들은 주로 중고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9].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유난히 열광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팬덤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대중스타에 열광하는 것은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긴장과 다양한 갈등심리의 해소, 현실의 도피, 대리만족, 역할모델의 대상의 추구 등을 반영하며 더 나아가 자신과 비슷한 사고와 행동을 구현하는 집단적 체험의 장이다[7]. 이처럼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특이한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존재가치를 찾아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14][31].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제도교육이나 지배적인 질서에서 성취할 수 없는 욕구를 성취하는 데 대중문화를 이용하고 있어[6][22]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은 학교생활이나 발달과정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10].

반면, 또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팬덤형성과정에서 스타를 향한 자신의 애정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경우 ‘중독’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앨범을 못 사거나 콘서트에 못갈 때, 매일 다른 팬들이 올린 스타관련 게시물을 읽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스타생각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없고 하루종일 모든 생각이 스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19].

Fiske(1993)에 따르면, 팬덤은 자율의 결핍, 공동체의 부재, 불안정한 정체성 즉, 불만족스러운 현재의 삶에 대한 위로를 받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인 동시에, 팬은 자신의 결핍을 보완하고자 유명인과 스포츠 스타에 대한 충성도를 통해 자신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34]. 이렇게 볼 때 청소년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조직하여 그 안에서 밖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자원들을 생산하여 문화적인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현실과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소외와 결핍을 느끼게 되어, 결국 행복을 위한 노력이 행복의 결핍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팬덤은 사회 내에서 그다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적 문화에서 많이 나타난다[1]는 점을 주목할 때 우리나라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팬덤은 남성보다는 여성, 성인보다는 청소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팬덤활동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사이에서 더욱 우세한 것으로 보여진다[41][36].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점차 독립적으로 또래문화에 참여하여 또래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주요 과업인 자아정체성과 독립성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그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다른 정체성의 대상을 찾게된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은 이들에게 대안적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보다는 연령이 어린 중학생 그리고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이 적극적인 팬덤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1], 또다른 연구[26]에서도 여아가 더 적극적인 팬덤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 팬덤활동의 원인 및 영향

출처	팬덤활동의 원인 및 영향
긍정적 측면	[7]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긴장, 다양한 갈등심리의 해소, 현실도피, 대리 만족, 역할모델 대상의 추구, 집단적 체험의 장
[14][31]	나름대로의 존재가치를 찾아감
[6]	현실에서 성취하지 못한 욕구성취
[10]	학교생활 및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부정적 측면	[19] 스타에 대한 중독현상을 경험 불안감 경험
[35]	자율의 결핍, 공동체의 부재, 불안정한 정체성
[1]	청소년의 문화적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 주변적 문화에서 많이 나타남

2.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을 나타내며,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의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25]. 지각된 삶이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지각하는 것으로[29], 국내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5][17][41]. 청소년기의 낮은 삶이 만족도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을 비롯한 인터넷 및 게임중독, 음주 등과 같은 문제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위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삶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변인 중의 하나는 자아탄력성이다.

탄력성이란 상황적 요구에 알맞게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 방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5].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며[4],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 실제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주변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30] 실제 이러한 자신감은 더 많은 대처전략을 갖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상황대처능력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기도 한다[23]. 즉, 또래들과의 감정적인 표현과 소통을 통해 자존감을 고양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또래집단에서의 긍정적인 지지는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24][43]. 또래애착은 가족다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준거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주관적 관계의 속성이므로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애착은 친구들과 일상에서의 고민을 나누는 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32],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와 극복에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게 된다[15][36]. 이러한 측면에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교생활 만족은 물론 전반적 삶의 만족과도 관련되어 있다[39][40].

이 밖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구조가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부모 가족이 청소년을 지지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이로인해 삶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29][33].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는 총 78개

의 표본 학교의 중학교 1학년 학생 2,716명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최종 2,35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수집된 2,351명 중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1,358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2.1 종속변수: 팬덤활동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총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팬미팅 참석, 팬클럽 및 팬카페가입, 방송국이나 공연장, 경기장 가기, 홈페이지 방문, e-mail 또는 팬leter 쓰기, 선물보내기, 포털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 책, CD, 비디오테이프, DVD 구입,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 올리기 등의 문항을 통해 4점척도로 측정되었다. 팬덤활동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7이었다.

2.2 매개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세 문항을 4점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 α =.80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독립변수: 자아탄력성, 긍정적 또래관계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30]를 유성경(2002)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14개의 문항을 사용[12]하였으며, Cronbach α =.83이었다.

긍정적 또래관계는 Armsden & Greenberg(1987)가 제작한 또래애착척도(IPPA)[28]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3개의 하위영역의 사소통, 신뢰, 소외 영역 중 긍정적인 또래애착관계를 나타내는 의사소통과 신뢰 영역에 해당되는 총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또래관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통제변수: 소득수준, 가족구조, 성별

소득수준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분위별 경제값을

이용하여 5개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가족구조는 동거하는 부모의 수에 따라 양부모인 경우는 2, 한부모는 1, 조부모 및 기타는 0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통합모형에서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다집단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나 또래관계가 삶에 만족도에 따라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청소년 성별에 따라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모형이 남녀 집단에 모두 적절해야만 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므로, 형태동일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여러 경쟁모형이 있을 때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에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녀 집단별로 모형비교를 실시하여 동일하지 알아보았다. 형태동일성을 충족한 후,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과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은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서는 측정동일성 검증이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측정동일성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사이에 각 요인계수가 동일한지 평가한다. 요인계수는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요인계수가 집단 간에 같다는 의미는 측정변수들이 같은 잠재변수를 측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26]. 집단 간 측정 동일성 모형을 동일화 제약을 가한모형과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여 검증하고 다집단 분석을 이용하여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은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외에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

하기 위해 χ^2 ,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지수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초 통계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중 1 청소년 1359명 가운데 40%(543명)이 남자, 60%(815명)이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학생이 팬덤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상청소년 가구의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가구의 분위별 소득경계값(5분위)을 기준으로 1분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21.3%(273명)이었으며, 2분위가 18.6%, 3분위는 20.0%, 4분위 23.4%, 그리고 5분위가 16.6%로 나타나 표본의 소득수준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수준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통계량(명·%)		
성별	남	543(40.0)		
	여	815(60.0)		
가족구조	양부모	1176(86.7)		
	한부모	163(12.0)		
	조손 및 기타	17(1.3)		
연평균 가구 소득 수준 ³	20%	273(21.3)		
	40%	238(18.6)		
	60%	258(20.1)		
	80%	300(23.4)		
	100%	213(16.6)		
		최대값	최소값	평균(SD)
연가구소득 (만원)		30,000	0	4,375.4 (2,859.0)
긍정적 또래 관계	의사소통	12.0	3.0	9.2(1.8)
	신뢰	12.0	3.0	9.2(1.8)
자아탄력성		56.0	16.0	40.9(6.2)
팬덤활동		36.0	3.0	15.5(6.0)
삶의 만족도		12.0	3.0	8.4(2.1)

1. 통계청(2010), 가계동향조사: 분위별 경계값 (단위: 원)

경계값	20%	40%	60%	80%
	1,889,016	2,865,000	3,773,566	5,084,726

2. 각 변수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 3을, 첨도는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37].

연가구소득의 소득이 전혀 없는 0에서부터 30,000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 가구의 연가구소득 평균은 4,375만원(2,859.0)이었다.

분석대상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의사소통과 신뢰는 모두 최소값이 3.0, 최대값이 12.0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또한 9.2(1.8)로 두 항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40.9점이었으며, 팬덤활동은 15.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대값 15점, 최소값 3점이었으며 평균은 8.4점이었다.

2. 연구모형 분석결과

2.1 측정모형 분석

팬덤활동,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긍정적 또래관계 등을 측정하는 잠재변수들의 구성개념에 관한 측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p)	CFI	TLI	RMSEA
331.528	459(0.000)	.817	.790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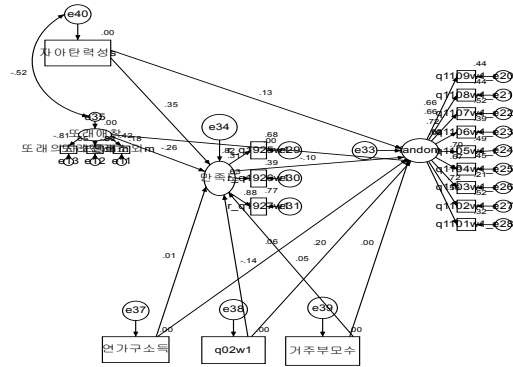
2.2 구조모형분석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또래애착이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확인하고 청소년의 남녀 집단 간 경로 구조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분석결과,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높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며[4],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교생활 만족은 물론 전반적 삶의 만족과도 관련되어 있다[38]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NFI=.851,RFI=.803,TLI=.822,CFI=.865,RMSEA=.075

그림 1. 통합모형 분석결과(표준화계수)

팬덤활동에 대해서는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팬덤활동에 비교적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적절한 수준의 이상화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적응적이라는 선행연구[26]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또래관계는 팬덤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 팬덤활동을 청소년들의 또래문화의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향이 오히려 청소년을 팬덤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팬덤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긴장과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세계로 부터의 도피, 대리만족 등을 반영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팬덤활동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은 친구관계를 매개해주고 심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2][18], 함께 팬클럽 활동 등을 함으로써 또래간의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삶에 대한 낮은 만족정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팬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에 대한 몰입이나 증독현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된다는 주장이 있다[19].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후자 즉,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팬덤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3 다중집단분석

다중집단분석은 두 집단의 경로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과 두 집단이 모형에서 각 경로가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등가제약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두 집단 사이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남녀 두 집단 간 경로가 같다고 가정된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동일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모형의 구조동일성 비교

모형	χ^2	df(p)	$\Delta\chi^2/\Delta df(p)$
비제약	1169.174	256	452.208/46
등가제약	1621.382	302	(p=3.913)

모형	CFI	TLI	RMSEA
비제약	.884	.845	.051
등가제약	.833	.810	.057

모형의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형태동일성이 모두 확보되었으므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남녀집단간의 경로계수의 유의도와 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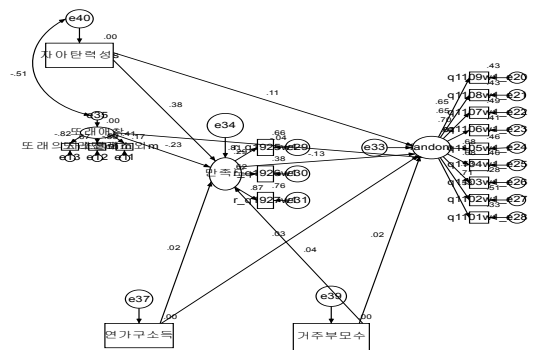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경로계수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었으나 동일한 경로에서의 유의도도 차이가 있었다.

먼저, 여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팬덤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팬덤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긍정적인 또래와의 애착관계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팬덤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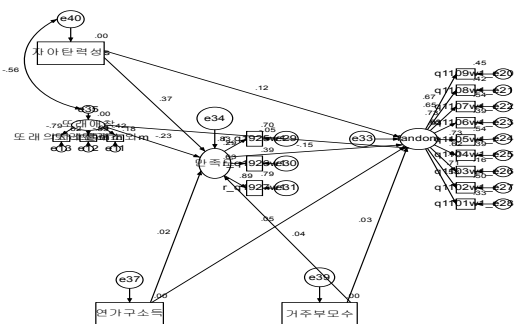
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청소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통합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팬덤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자아탄력성과 팬덤활동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이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와 관계는 여학생 집단과 동일하게 유의하였으나 자아탄력성은 팬덤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팬덤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인보다는 청소년이 보다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1][7][34] 제시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같은 결과는 여학생의 관계지향적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NFI=.858,RFI=.810,TLI=.845,CFI=.884,RMSEA=.051

그림 2. 다중집단분석결과: 남학생



NFI=.858,RFI=.810,TLI=.845,CFI=.884,RMSEA=.051

그림 3. 다중집단분석결과: 여학생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팬덤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나 또래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따라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청소년 성별에 따라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팬덤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경우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인터넷 중독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또다른 형태의 중독과 같은 형태로 발전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나 또래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따라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은 팬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삶에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애착은 팬덤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팬덤활동에 대한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영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팬덤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삶이 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팬덤활동은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삶의 만족도와 팬덤활동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팬덤활동 자체가 청소년 고유의 문화로서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현실도피나 대리만족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스

타에 몰입하게 되면서 스타에 중독되는 현상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사회참여활동의 일환으로 팬덤활동을 선택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고, 적절한 청소년 문화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청소년 활동 및 문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학생의 경우 관계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참여기회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학교 밖 활동이나 자원봉사 및 문화 활동, 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프로그램의 형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그 종류에 따라 또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팬덤인지 오프라인 팬덤인지에 따라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이 어떠한 형태의 팬덤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석기, 서경화, "스포츠 팬덤문화의 여성화,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9권, 제1호, pp.61-75, 2011.
- [2] 김정민,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pp.123-132, 2005.
- [3] 김정진, *대중문화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견해와 수용 실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 [4] 김지연, 정봉교, "BAS/BIS, 자아탄력성과 웰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6권, 제2호, pp.313-327, 2011.
- [5] 김지혜,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

- 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pp.41-62, 2012.
- [6] 김창남,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서울: 한울, 1995.
- [7] 김현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이상화 간의 관계: 교우관계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매개변수로”,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1호, pp.115-139, 2002.
- [8] 박재숙, “초기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4호, pp.47-69, 2011.
- [9] 소유현, 현은강, “아동의 성, 연령, 자아존중감과 연예인 이상화 현상”,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1권, 제2호, pp.89-104, 2001.
- [10] 안은미, 김소희, 전선율, 진성미, 정익중,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pp.421-446, 2012.
- [11] 양재영, *청소년 대중문화 수용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12] 유성경,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pp.201-217, 2002.
- [13]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신체상, 부모와 또래에 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간리학회지, 제23권, 제5호, pp.123-132, 2005.
- [14] 이상화, *청소년 하위문화로서의 드라마 팬덤 연구: ‘다모페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5] 이유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리듬운동의 교육적 가치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pp.63-72, 2012.
- [16] 이진희, “청소년의 대중가요 선호 현상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제67호, pp.21-46, 2007.
- [17] 이현웅, 곽윤정,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7호, pp.59-83, 2011.
- [18] 임영식, “대중 스타에 대한 청소년의 이상화 현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3호, pp.57-78, 2002.
- [19] 정재민, “청소년 팬덤 현상에 대한 그건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pp.91-119, 2010.
- [20] 조성연, 김혜원, 김민,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제3호, pp.87-98, 2011.
- [21] 조아미, “청소년의 대중 가요 가수 이상화 현상에 대한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1호, pp.1-20, 1998.
- [22] 조은하, “청소년 게임문화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지, 제5권, 제2호, pp.106-113, 2007.
- [23] 조진만, 강정한, 이병규,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제43권, 제1호, pp.47-71, 2012.
- [24] 조진만, 강정한, 이병규,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제43집, 제1호, 2012.
- [25] 차경호,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연구, 제9권, pp.7-26, 2001.
- [26] 최우신, 김영희, “청소년의 연예인 이상화 현상의 특성”,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2호, 1999.
- [27] 홍세희, *위계적, 종단적 자료에 대한 다층모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7.
- [28]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4, 1987.

- [29] Y. M. Baek, "The effects of circadian rhythm on life satisfaction and optimistic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5, pp.809-821, 2004.
- [30]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 [31] E. F. Brown and W. R. Hende, "Adolescents and their music: Insight into the health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62, pp.1659-1663, 1989.
- [32] S. Cheng,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idolatry in adolescents", *Adolescence*, Vol.32, pp.687-692, 1997.
- [32] D. H. Demo and A. C. Acock, "Singlehood, Marriage, and Remarriage-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Vol.17, No.3, pp.388-407, 1996.
- [33] Y. Eagle and T. Kasser, "Why do adolescent girls idolize male celebriti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20, No.2, pp.263-283, 2005.
- [34] J. Fiske,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In L. Lewis(ed).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NY: Routledge, 1993.
- [35] W. W. Hartup, "Playing all the roles: Gender and work-family balancing a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1, pp.476-490, 1996.
- [36] B. J. Hirsch, "Natural support systems and coping with major life chang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8, No.2, pp.159-172, 1980.
- [37]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05.
- [38] D. J. Liab, G. Carlo, and M. Raffaelli,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9, No.1, pp.45-59, 2000.
- [39] A. B. Nickerson and R. J. Nagle,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66, No.1, pp.35-60, 2004.
- [40] A. Raviv, D. Bar-Tal, and A. Ben-Horin, "Adolescent idolization of pop-singers: Cause, expression, and reli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5, No.5, pp.631-651, 1996.
- [41] J. Y. Shin and H. W. Hwang, "The stres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effects of selected eco-systemic protective factors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3, pp.123-154, 2006.
- [42] C. K. Wan, J. Jaccard, and S. L. Rame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family stru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8, No.2, pp.502-513, 1996.

저 자 소 개

김 선 숙(Sun-Suk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아동복지